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활성도-
ATGen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66호 1판 (음력 6월 27일) 2017년 8월 18일 금요일

전남 '살충제 계란' 농가 6곳 추가

나주 이어 화순·무안서 검출
11개 시·군 농약 농가 공급
가축 방역 관리·감독도 구멍

전남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양계농가가 모두 7곳으로 늘어나면서 '친환경' 전남 농산물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문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지역 산란계 농장의 피해 우려와 함께 '살충제 계란'의 유통경로 및 유통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신도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나주를 비롯한 전남 11개 시·군에서 국비·도비·시비 등의 예산으로 살충제 성분 농약을 구입해 양계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지방정부의 허술한 가축 방역 관리·감독도 '살충제 계란' 파문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6면〉

전남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양계농가는 현재 5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지 약품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양계농가도 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화순군 동면 3개 농가(각 1만5000마리), 무안군 운남면 1개 농가(4만 마리) 등 모두 4곳에서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0.01ppm)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살충제 계란으로 퇴비 만든다는데… 나주시는 17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폐기물 처리 업체에 의뢰, 처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문제가 된 계란을 가공해 퇴비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퇴비가 농작물 재배에 사용될 경우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일반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을 허용기준치(0.01ppm)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친환경 농장에서는 유기합성농약을 써서는 안 된다.

전남에서는 화순군 동면 3개 농가, 무안군 운남면 1개 농가 등 모두 4곳에서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0.01ppm)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농가는 모두 친환경 미인증 농가로, 허용기준치의 최소 4.1배(0.041ppm)에서 최고 27.2배(0.272ppm)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남에서 비펜트린이 과다 검출된 곳은 전날 나주 공산면 농가를 포함해 모두 5개 농가로 늘었다.

또한,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살충제 부적합 농가는 모두 36곳으로, 이 가운데 나주와 함평 양계 농가 2곳에서 금지약품인 피프로닐이 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남지역의 살충제 부적합 농가는 모두 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허용기준을 넘지는 않았지만 사용하지 말아야 할 농약을 살포한 친환경인증 농가가 전국적으로 35곳이 확인돼 전남 산란계 농가에서도 친환경인증 기준 위배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文대통령 "내년 지방선거때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불가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 간의 갈등 고조로 인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전쟁불가론'에 재차 쐐기를 박았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것은 한미간의 굳은 합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 기준에 대해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처음으로 밝히면서 "북한이 만약 또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헌과 관련, 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합의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큰 이견이 없는 지방분권이나 국민기본권 확대안에 한해서라도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탈 원전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탈(脫)원전에 이르려면 60년 이상 걸린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며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동욱기자 tuim@

알립니다

제2회 윤동주 서시 문학상 공모

중국 용정 윤동주 시비

광주일보사·'시산맥' 공동
윤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는 암울한 일제 식민시대를 온몸으로 맞섰던 시인입니다. '서시'에는 식민지 치하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했던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윤동주 시인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윤동주 서시 문학상'을 제정한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은 올해 생가와 모교가 있는 중국 용정으로 문학기행을 다녀오는 등 시인의 나라사랑과 시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회 '윤동주 서시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며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윤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도 공모합니다. '서시'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구현할 문학상에 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윤동주 서시 문학상

- **대상** : 등단 15년 이상으로 윤동주 문학정신을 바르게 실천하는 시인
- **선정대상** : 2016년 계간 겨울호(월간 9월호)~2017년 가을호(월간 8월호)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
- **상금** : 1000만원(11월 시상 및 수상작품집 발간)
- **심사일정** : 9월에 심의위원이 추천한 시인의 작품을 대상으로 10월 중 본심

윤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

- **공모분야** : 시(한글) ■ **대상** : 등단 10년 이상으로 해외 거주하는 시인
- **응모 작품 수** : 5편 이상 10편 이내
- **마감** : 2017년 9월 30일 ■ **상금** : 300만원
- **응모 요령** : 원고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약력, 전화번호 기재)
- **보낼 곳** : poemmtss@hanmail.net(문의 062-220-0624, 02-764-8722)

光州日報社

정보 없어 살충제 계란 공포 ▶6면
새만금서 2023년 잼버리 대회 ▶13면
신팔도유람-충남 서해안 섬 ▶18면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Completion of SUV Line up
G-Class, GLS, GLE, GLE Coupé, GLC, GLC Coupé, GLA
메르세데스벤츠 SUV 라인업의 완성.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와 함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Tel.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LA 45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640kg, 자동7단), 복합연비: 9.1km/ℓ(도심연비:8.3km/ℓ,고속도로연비: 10.4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192g/km · GLC 22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958kg, 자동9단), 복합연비: 12.9km/ℓ(도심연비:11.6km/ℓ,고속도로연비: 15.1km/ℓ), 등급: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GLC 25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1,9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11.4km/ℓ,고속도로연비: 14.7km/ℓ), 등급:3등급, 복합CO2배출량: 151g/km ·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95kg, 자동9단), 복합연비: 8.1km/ℓ(도심연비:7.5km/ℓ,고속도로연비: 9.0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17g/km · GLE 250d 4MATIC (배기량: 2,143cc, 공차중량: 2,280kg, 자동9단), 복합연비: 11.1km/ℓ(도심연비:10.4km/ℓ,고속도로연비: 12.2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173g/km · GLE 350d 4MATIC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350kg, 자동9단), 복합연비: 9.7km/ℓ(도심연비:9.0km/ℓ,고속도로연비: 10.8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200g/km · Mercedes-AMG GLE 63 4MATIC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520kg, 자동9단), 복합연비: 5.8km/ℓ(도심연비:5.2km/ℓ,고속도로연비: 6.8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306g/km · GLE 350d 4MATIC Coupé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405kg, 자동9단), 복합연비: 10.1km/ℓ(도심연비:9.2km/ℓ,고속도로연비: 11.3km/ℓ), 등급:4등급, 복합CO2배출량: 193g/km · Mercedes-AMG GLE 63 4MATIC Coupé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465kg, 자동9단), 복합연비: 6.2km/ℓ(도심연비:5.4km/ℓ,고속도로연비: 7.5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89g/km · G 350d (배기량: 2987cc, 공차중량: 2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7.7km/ℓ(도심연비:7.2km/ℓ,고속도로연비: 8.3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259g/km · Mercedes-AMG G 63 (배기량: 5461cc, 공차중량: 2635kg, 자동7단), 복합연비: 5.2km/ℓ(도심연비:4.8km/ℓ,고속도로연비: 5.8km/ℓ), 등급:5등급, 복합CO2배출량: 342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